

##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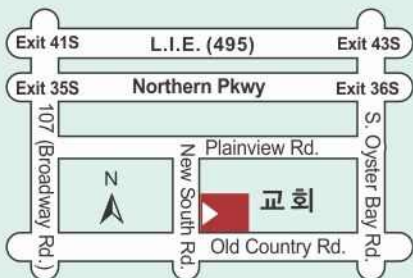
###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 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 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 당
	영 어 예배	오후 1:00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 당
수 요 예 배	오후 8:30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월~토)	본 당	
목 장 모 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 자 훈 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 일 학 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 교회 오시는 길



###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 뉴욕 예일 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 중 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http://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 배 시 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 도 자	김중훈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다 같 이		
찬 송 Hymn	251장, 354장		
기 도 Prayer	홍정자목사	윤희주장로	정수영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렘(Jer)1:11-19		
찬 양 Anthem	글 로 리 아	글 로 리 아	할 렐 루 야
말 씬 Sermon	네가 무엇을 보느냐? 김중훈목사		
찬 송 Hymn	630장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찬 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최훈집사	2부 김근태장로	3부 박재우장로
방 송 설 교	KRB FM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기쁨과 감사함으로 리오프닝을 맞이하게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왕상(1Kings) 19:1-18

제목: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서는 역사가 어두울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합 왕이 북 왕국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바알숭배로 온 나라가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맞서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무장시키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가뭄에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먹이신 일,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친 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의 기도로 다시 내리게 된 일 등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복수 협박에 완전히 주저앉고 맙니다. 이스라엘 땅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여 사환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합니다. 불꺼진 재요, 바람 빠진 자동차 타이어처럼 되었습니다.

누구나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살펴봅시다.

1. 천사가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었습니다(5, 6절). 탈진할 때는 잘 쉬고 잘 먹어야 합니다.

2. 천사는 엘리야로 하여금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게 합니다(8절). 호렘산은 시내산이라고도 하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탈진할수록 치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합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3. 하나님은 호렘산 굴속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고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그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11, 12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탈진은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기셨습니다.

[질문]

1.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가 어루만져 준 경험이 있습니까?
2.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지금 내가 파놓은 굴속에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유의 세 가지 과정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 목장이야기

### 유년부 졸업여행

유년부 졸업 Trip을 갔다 왔어요. 예일 유년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입니다. 6학년을 졸업하고 7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중고등부로 부서가 바뀝니다.

이번에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6학년은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6학년 때 함께 만나 교회에서 fellowship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코로나 사태가 많이 나아지면서 몇 주 전 토요일에 만나서 졸업 trip을 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같이 한 장소에 있다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박용훈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는 밴에서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서도 재잘재잘 거렸습니다.

Adventure Land 라는 놀이 공원에 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오전엔 많지가 않아 실컷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중화요리도 먹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건강하게 만나서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일 년이 넘게 만나지 못했었지만 아이들이 금방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6학년 아이들은 중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이제까지는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었지만 중고등부에선 제일 어린 학생이 됩니다. 중고등부에서도 친하게 지내며, 알빈전도사님과 언니, 오빠, 누나, 형들한테서 좋은 영향 많이 받으며 주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 주일 찬양예배

### 온라인 예배 가이드

- \*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 2. 예배 전에 씻고 아침을 먹는다. 식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 3. 교회 갈 때처럼 예배에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 4. 십일조 및 헌금을 준비한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우편봉투에 넣어 예배시간에 드린다. Venmo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헌금시간에 맞추어 헌금한다. 주중에 교회에 들어서 헌금하실 분들은 부목사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다.
- 5. 예배시간(2부 9시 30분, 3부 11시)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한다.  
<http://www.yalechurch.org/live-stream-sermon/>
- 6. 동시통역: 3부 예배(11시)에 동시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Join Zoom Meeting: Meeting ID: 871 2789 7718 Passcode: 861254  
<https://us02web.zoom.us/j/87127897718?pwd=dTFkMG1XN3E2MnBkUTMyUUJFdTBsZz09>
- 7. 다음을 숙지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 a. 발을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예배당에서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 b. 아이들은 부모 옆에 앉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녀들에게 참을성 있게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 c. 설교 및 찬양 시간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나 갑담은 피한다.
  - d.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 e.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한다.
  - f. 예배 후에 주어지는 적용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6월 30일
인 도	.....	김근태장로
말 씬	.....	김종훈목사

###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씬	..... 김종훈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7월4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최훈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김근태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박재우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7월7일 수요예배	전미경권사	예배부

## 교회소식

###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십시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요일예배: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예배 전 헌금함에 미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6/27일부터 본당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 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담임목사동정:** 제 17대 뉴욕장신대 학장 당선  
\*7월 3일(토) 오후 6시 뉴욕장신대 학장&이사장 이취임예배, 본당
3. **6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고, 각 목장에서는 7/1(목)까지 부목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리오프닝 기념 볼펜:** 성도 한분에 한 개씩입니다.
5. **팬데믹 동안 받은 은혜를 주제로 간증문:**  
\*제출기한: 6/30일(수)까지 부목사실로 제출  
\*내용: 팬데믹 중 선포된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은 것, 팬데믹 중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받은 은혜, 팬데믹 중 말씀읽기, 말씀쓰기 등으로 받은 은혜  
\*각 목장에서 1편 이상
6. **CCM 리오프닝 바비큐:** 오늘 오후 2시 30분
7.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준비기도회:** 오늘 오후 1시, 친교실
8. **2021 예일 여름학교 안내:** Yale Disciple Land Summer School 온라인만 있습니다.

대상	2021년 가을학기에 1학년~6학년이 되는 어린이들
기간	7/5-8/13(6주) 월-금, 오전 9시-12시
회비	첫 번째 자녀 \$600, 두 번째 자녀부터 \$550
접수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a href="https://yalechurch.org/elementary/">https://yalechurch.org/elementary/</a>

9.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정성원장로&심순희권사(아들추모)  
- 사랑의식탁: 배경례권사(생일)

### 행사예고

- 5/13-7/24	피택 직분자 교육(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교회)
- 7/4	정기당회
- 7/11	졸업 및 진학 예배 오후 2시 30분
- 7/18	제직회

### QT본문

요일	일(27)	월(28)	화(29)	수(30)	목(7/1)	금(2)	토(3)
본문	잠(Prov) 30:1-17	잠(Prov) 30:18-33	잠(Prov) 31:1-9	잠(Prov) 31:10-31	약(Jas) 1:1-11	약(Jas) 1:12-18	약(Jas) 1:19-27

## 목양 칼럼

2021. 26. 또 하나의 사명의 길

지난 월요일 밤에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이사회에서 제가 제17대 학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저의 모든 섬김은 저 자신의 의도적 섬김이었다기보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 온 것 같습니다.

예일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밖에 모르던 저에게 갑자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만 돌보았으니 이제는 연합사업을 통해 뉴욕지구의 교회들을 섬기라는 뜻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단 총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본 교단 소속 500여 교회를 섬기라는 뜻인 줄 알고 또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새 건물을 잘 건축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목회 마무리를 할까 하는 때에 또 하나의 사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단(KPCA) 뉴욕장신 교수로 2002년 봄부터 2014년 봄 학기까지 12년을 섬겼습니다. 제 마음 속에 학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학교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살리라는 말씀 앞에 좋은 순종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는 선지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찌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무신론의 바벨탑은 높이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여전히 꿈을 품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신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길러 교회가 살아나면 이 사회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4년의 임기입니다. 제 임기 동안 학교가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골고루 갖춘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